

중국시장 개척단 파견결과 보고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통상전시팀장 이은홍

1. 파견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중국정부는 금년초 책정한 7%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증대, 투자확대 및 민간 소비 증대에 중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바, 세계경제의 호전, WTO 가입, 수년간의 확대 재정정책의 효과 등으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임.
- 이에 따라 중국은 내륙지역 개발정책과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사회 간접시설 확충 및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전력수요 성장은 매년 12%대로 크게 증가하여 발전 및 송변전설비 투자 등의 전력설비 확충에 많은 투자가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전력기자재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여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기자재 구매관련 바이어들 및 관계자의 상담이 성공리에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파견을 추진하였음.

나. 목적

- 중국 본토의 수출 판로 개척 및 시장정보 입수
- 한국의 전기기기 제품 우수성 및 SIEF 2000 홍보
- 양국 전기공업 단체교류 협정 체결에 관한 의견교환

2. 시장개척단 파견 개요

- 기 간 : 2000. 7. 18~7. 26(8박 9일)

- 파견지역 : 상해, 북경, 대련
- 주 관 : 한국전기공업진흥회
- 후 원 : 중소기업청, KOTRA
- 파견규모 : 진흥회, 전기연구소, 업체 11명
- 특전 : 참가한 업체에 대하여는 상담장임차료, 버스임차료, 광고비, 바이어섭외비, 인쇄비, 통신비, 카다록발송비 등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였음.

〈 파견업체 및 상담실적 〉

(단위 : 명, USD천불)

업 체 명	상담자·직책	상담바이어수	상담금액	상담품목
신한전기공업(주)	박영상 상무	17	810	- 변압기
선도전기(주)	박영순 이사	18	3,390	- 진공차단기 - 중앙감시제어반 - 수배전반 - 계장제어반
(주)태광이앤씨	김창한 이사	17	1,490	- 변전설비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서창전기통신(주)	윤계웅 대표이사	17	5,800	- 전자식 전력량계 - 보통전력량계
인택전기전자(주)	고인석 대표이사	14	3,750	- 가스개폐기 - 차단기 - 과부하경보기
(주)UPI	라병철 대표이사	14	748	- 권선기 - 절단기
남성기업사	이종성 대표	15	819	- 부스바가공기
한국전기연구소	강영식 실장	16	90	- 전력시험홍보 - 전기관련연구 홍보
한국전기공업진흥회	공창덕 상근부회장 이은홍 팀장	-	-	- 상담일정관리 - 전시회홍보 - 한국의 전기산업홍보 - 양국의 전기공업단체교류, 협정체결 의견교환
계		128	16,897	

3. 중국의 전력산업 동향

가. 전력산업 동향

- 중국은 '80년대 들어 사회주의 체제에 시장경제를 접목시키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도 꾸준히 발전해 왔다. 전력부문에서 1998년말 기준으로 중국은 발전능력 277,298 MW를 가진 세계 2위의 전력 생산국으로 11,577억kWh를 발전하여 지난 10년간 중국의 발전설비 증가율은 연평균 9.3%를 상회하고 발전량의 증가율도 9.7%를 기록하였다.

〈 발전 설 비 〉

(1998년말 기준)

구 분	수 력	화 력	원자력	기 타	합 계
설비용량(MW)	65,065	209,884	2,100	240	277,289
발전량(억kWh)	2,043	9,388	141	5	11,577

- 중국 전력산업의 개발정책 목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전력생산과 전기절약을 동시에 중시하며, 기술혁신과 발전소 개수에 의한 발전효율 향상
 - 정부규제와 사업관리의 기능 분리를 통한 전국적인 계통관리체계 일원화
 - 전력산업에 비교 우위를 중시, 즉 화력 발전 및 수력 발전 프로젝트는 쌍방 모두가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나, 수력발전소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우선한다. 원자력 발전소는 에너지 부족이 두드러진 연해의 쑤에서 개발 추진
 - 산탄지 발전소의 개발을 장려하여 석탄이 풍부한 서부 지역으로부터 수요가 큰 동부 지역으로의 초고압 송전 및 화력 발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석탄 크린화 및 탈황 기술연구 중점
 - 신 발전소 건설시 발전소 부지내 설비 용량을 30만kW이상으로 하여 소규모 화력발전소의

개발을 제한, 또한 풍력, 태양, 해양 및 지역 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 개발 적극 참여

- 제9차 5개년 계획(1996~2000) 중 전력수요 성장을 반영, 외국인의 중국내 전력사업 참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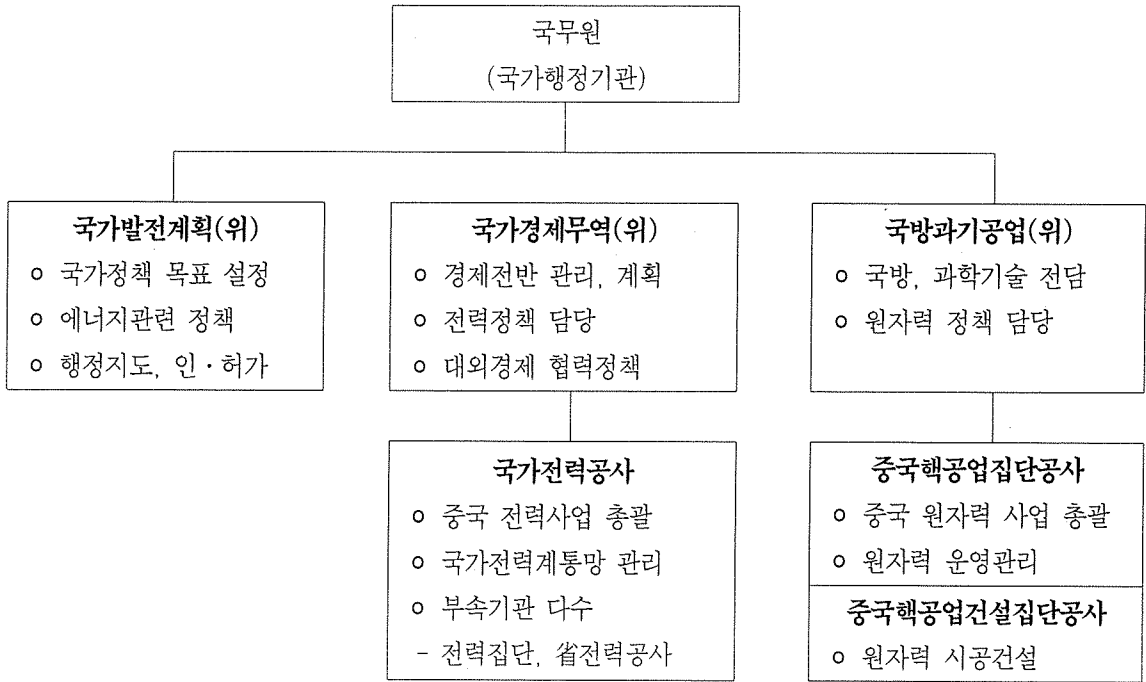
나. 전력산업의 주요 기관 및 기능

- 중국의 전력관리 체제는 국무원 산하의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및 국가 경제무역위원회 부서에서 정부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지도하에 국가 전력공사에서 전력산업의 기업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 전력공업부의 조직 해체로 1997년 1월 설립된 국가전력공사(State Power Corporation of China)는 국무원이 전액 출자한 독립된 기업으로 투자 및 경영의 주체가 되어 지역간의 송전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의 전력망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중국 전체 발전

설비 중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국가 전력공사 부속기관으로는 화북, 화동, 화중 및 서북 등 전력집단공사와 산동성, 요령성 등 다

수의 省전력공사 그리고 송·배전 전담의 전 업국 등이 있다.

○ 전력산업 체계



○ 각 전력산업 기관별 기능 및 역할

- 전력공업부

전력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중앙정부 조직으로 전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 감독의 권한이 있음.

※ 국가 전력공사의 설립으로 1988년 초에는 전력공업부 기능이 국가계획위원회로 귀속됨.

- 전력집단공사

각 전력망 단위로 설립된 조직으로 그 지역내에서 전력의 생산, 송변전, 배전의 실질적인 전력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산하기관으로는 전

력공사와 직할 발전소가 있음. 중국에는 현재 동북, 화북, 화동, 화중, 서북 등 5개 전력집단이 중국 대부분 지역의 전력생산과 공급을 담당.

- 전력공사

전력집단의 산하기관으로 각 지방정부에서 전력생산, 공급의 임무를 수행하며 산하기관은 각 시, 현 전업국이 있으며 길림성 전력공사 등 27개 전력공사가 있음.

- 전업국

각 시, 현에서 송배전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

다. 원자력 산업

- 중국은 1970년이래 만성적으로 전력부족 상황이 지속되었고, 70년대말 개혁·개방으로 경제가 급속히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화되었다. 수·화력발전에 주로 의존하던 중국 전력산업은 석탄공급과 환경문제, 수력 자원의 원거리 등의 영향으로 동부 경제 발달 지구에 원자력 발전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91년 자체 설계로 제작한 浙江省 秦山 1호기 원전(30만kW)이 상업운전에 들어가고, 1994년에는 프랑스의 설비를 도입한 廣東省 大亞灣 1,2호기 원전(180만kW)이 상업운전에 들어감으로써 중국에서도 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전중에 있다. 또한 浙江省 秦山 원전 2,3단계(각 2기, 총 130만kW), 광둥성 2단계 사업인 嶺澳 원전(2기, 90만kW) 및 江蘇省 蓮雲港 원전(2기, 100만kW)이 각각 건설 중에 있다. 2005년까지 이들 건설중인 원전이 모두 준공되면 원전은 총11기에 설비 총용량이 850만kW에 이를 전망이다.
- 중국은 1990년대 후기에 들어와서 지금까지의 원전 경험과 한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거울 삼아 국산화 시범 프로젝트를 한 두 곳에 건설할 계획으로, 2010년에는 원전 설비 총 용량이 2000만kW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1997년부터 아시아의 경제위기에 따른 전력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중국 정부는 원자력을 포함한 발전소 건설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임을 발표한 바 있으나, 1999년에 들어와 다시 전력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함으로써 신규발전소 건설은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보임.

라. 중국의 전력산업 전망

- 2000년 발전설비는 연평균 1600만kW 증가한 2억9천만kW, 발전전력량은 연평균 7% 증가한 1조4천억kWh로 전망하고 GNP성장률을 연평균 8%로 추계할 경우 2010년에는 발전전력량이 2조5천억kWh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의 발전설비용량 전원별 구성비는 화력 75%, 수력 23%, 원자력 0.72%, 지열, 풍력 등 신에너지는 0.35%로 계획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의 장기목표는 각 광역전력망을 조정하여 500KV송전망으로 건설하고 지역간 또는 지역내 연계를 실현하는 것임.
- 2009년 삼협담발전소를 준공하여 화중, 화동, 사천에 송전하고 2010년까지 서남수력발전기지의 소만, 용탄 등의 대형발전소가 완공되어 광동, 광서전력망에 송전하는 등 북부전력망, 중부전력망, 남부전력망 등 3대전력망이 형성되어질 계획으로 2020년에는 3대전력망이 대형수력 및 화력발전소와 연계되어 전국범위의 전력계통연계가 실현될 예정임.

마. 기타사항

- 삼협담을 중심으로 한 반경 1,000Km의 원을 그리면 동북지방과 산둥 반도를 제외한 중국의 해안선에 거의 일치하며, 삼협은 중국주요부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삼협송전프로젝트는 중국에 있어 전국 대전력 계통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임.
- 중국에서는 전력경영의 민영화와 발전분야의 시장화에 맞춘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외자도입 축진이 도모되어 IPP나 BOT가 권장되며, 전

력계통에 있어서는 국가전력 총공사에 의한 전국적인 계획, 건설, 운용의 통일성이 중시되어져 삼협송전프로젝트나 지역전력망 사이의 연계프로젝트의 계획, 건설은 1996년에 설립된 중국전망건설유한공사가 실시주체로 되어 있음.

4. 중국의 중전기 산업동향

- 중국의 중전기 생산기술 능력은 우리나라보다 다소 뒤진편이 있으나, 기초기술 및 저전압 제품의 품질은 우리와 비슷하며 가격 또한 우리나라 제품의 70%선으로 향후 저전압 제품의 수출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특히 부싱 및 일부 중전기 분야는 우리 제품보다 우월하며, 차단기 및 개폐기는 거의 비슷한 기술수준임.
- 현재 중국에는 세계 유수 중전기 제조업체인 독일의 SIEMENS, 스위스 ABB, 미국의 WH, GE 일본의 미쓰비시, 하다치, 도시바, 후지 등이 현지에 진출하여 값싼 노동력 및 입지조건을 이용한 효율적인 생산으로 우리제품의 경쟁력이 위협을 받고 있음.
- 앞으로 중국시장의 WTO 가입 예정에 따라 외자유치가 확대되고 첨단기술이 유입되면서 중국제품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 중국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제3국에 대하여 한국의 수출시장에 대한 잠식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5. 중전기 품목별 동향

가. 발전기(GENERATOR)

- 독일, 미국, 일본산 제품이 대부분으로 수입제품의 점유율을 보면 독일, 미국, 일본이 각각 18%, 16%, 6%를 차지하고 있음. 품질 및 가격면에서도 독일, 미국 및 일본산 제품의 순으로 평가되고 있음.

나. 전동기(ELECTRIC MOTORS)

- 일본, 대만, 독일, 홍콩산 제품이 대부분이며 그중에서 일본산 제품이 수입제품중 47%를 차지하며 다음 순위로 대만, 독일, 홍콩산 제품이 각각 19%, 7%, 5%를 차지하고 있음. 품질 및 디자인면에서 일본 및 독일산 제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반면에 중국 및 대만산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가격면에서 일본 및 독일산 제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중국 및 대만산 제품의 가격이 가장 저렴한 반면 한국산 제품의 가격은 중간수준으로 나타남.

다. 전동공구(ELECTRIC POWER TOOL)

- 일본, 홍콩, 대만, 한국, 독일산 제품이 대부분이며 상기 5개국의 제품만 하여도 전체 수입제품의 79%를 차지함. 그중 일본산 제품이 44%를 차지하고 다음 순위로 홍콩, 대만, 한국, 독일산 제품이 각각 19%, 9%, 4%, 3%를 차지하고 있음.

라. 변압기(TRANSFORMER)

- 일본, 홍콩, 독일, 한국산 제품순으로 4개 국가의 제품이 수입제품의 57%를 차지하며 그중

일본산 제품이 30%를 차지하고 다음 순위로 홍콩, 독일, 한국산 제품이 11%, 9%, 7%를 차지하고 있음.

마. 차단기(CIRCUIT BREAKER)

- 차단기는 일본산 제품의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그외에 대만, 홍콩, 독일, 한국산 제품이 중국 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음.

바. 개폐기(SWITCHES)

- 독일, 일본, 스위스, 미국, 프랑스산 제품이 대부분이며 상기 5개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이 수입제품의 78%를 차지하며 그중 독일산 제품이 23%를 차지하고 다음 순위로 일본, 스위스, 미국, 프랑스산 제품이 각각 19%, 17%, 10%, 9%를 차지하고 한국산 제품은 전체 수입제품 중 0.1%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음.

사. 배전제어장치(CONTROL BOARD)

- 배전제어장치는 일본 제품의 점유율이 가장 높으며 그외에 대만, 홍콩, 독일, 한국산 제품이 중국시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음.

아. 변환장치(CONVERSION EQUIPMENT)

- 일본, 홍콩, 미국, 독일산 제품이 대부분이며 미국, 홍콩, 독일산 제품이 각각 19%, 14%, 3%를 차지하고 있음.

자. 전선(WIRE & CABLE)

- 일본, 대만, 한국, 홍콩, 미국산 제품이 대부분이며 상기 5개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수입량의 77%를 차지함. 그중 일본산 제품이 25%를 차지하고 다음 순위로 대만, 한국, 홍콩, 미국산 제품이 각각 23%, 12%, 12%, 7%를 차지하고 있음.

6. 참가업체별 상담결과

- (주)태광이엔시 (변전설비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중국은 현재 농촌 지역의 전력공급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관련 변전설비 및 관리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동사 제품에 관심을 나타내는 바이어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가격이 국산에 비해 높다는 점에 선뜻 구매의사를 밝히지는 못하였음. 이는 한국산 제품이 일본이나 독일, 미국 등의 선진국제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중국측 바이어의 일반적인 의식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기술을 인정하는 각종 인증서를 확보하여 이를 상담시 적극 활용하여 바이어를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신한전기공업(주) (변압기) 중국의 일반 전기 관련 제품은 생산량에 있어서나 품질면에서도 결코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일반 가정용 변압기의 경우 중국산은 가격경쟁력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공장용, 집단용 변압기의 경우 한국산도 경쟁력은 있는 것으로 바이어들은 간주하고 있음. 중국 바이어들은 한국업체들과 합작·생산하여 제3국(중동, 아프리카)으로의 수출을 희망하였으며 동사도

이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 인텍전기전자(주) (개폐기)

각종 개폐기, 케이블, 선로 고장표시기, 진공차단기, 과부하 경고기 등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하여 바이어와 활발한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북경시 최대의 전기스위치 제조업체인 北京開關廠은 공장 참관을 요청하였음. 동 중국업체는 케이블 선로 고장 표시기에 대한 합작 의향을 타진하였으며 인텍도 이를 고려키로 하였음. 중국은 현재 전국 각지에서 오피스텔, 호텔, 아파트, 상가 등의 부동산 개발붐이 불고 있어 각종 개폐기 및 관련 제품의 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또한 중국산의 기술부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지 않아 고급 건축물의 경우 수입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장 개척 여지는 큰 것으로 판단됨

○ (주)유피아이 (권선기, 절단기)

도금용 정류기, 소형정류기, 산업용 정류기 및 UV경화기, 직류적산 전류계 등을 생산 수출하는 동사는 바이어들의 기술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음. 독점 대리권을 희망하는 바이어와 동 제품의 중국 내 주요 수요처는 관련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상해, 서안, 심양이라는 힌트를 주는 중국업체도 있었음. 특히 도금용 정류기의 경우 현재 중국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귀금속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제품 생산업체들의 정류기에 대한 관심도 날로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장 진출 가능성은 큰 것으로 판단됨.

○ 서창전기통신(주) (각종 전력계량기)

현재 중국에 보급된 각종 전력계량기는 대부분 낡은 제품으로 교체 시기가 임박하고 있으며 건설붐으로 동 제품의 수요는 확대추세를 보이

고 있음. 그러나 중국제품의 뛰어난 가격경쟁력이 동사의 중국 시장 진출의 가장 큰 애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유사제품의 중국산 가격은 한국산의 1/2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한 실정이므로 가격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기술 및 성능분야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임. 현지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하여 가격경쟁력의 제고를 통해 내수시장 공략과 제3국 시장으로의 수출을 모색할 수 있는 對中투자도 고려해 볼만한 것으로 사료됨.

○ 한국전기연구소 (대전력시험기기)

현재 중국은 전기관련 완제품의 수출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자국산업 보호장치를 가동하고 있어 외국제품의 시장진출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획득한 기술인증을 인정하지 않고 수입시에는 중국 관련 부서의 재검사를 요구하고 있음. 우리제품의 중국시장 진출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판단됨. 물론 이러한 것은 한·중 양국이 상대국의 품질검사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 그러나 한국전기연구소는 한국 제품은 완벽한 품질검사를 거친 합격품만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동 연구소 보유 검사기기는 세계에서도 몇대 되지 않는 고가·고품질임을 중국업체에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 선도전기(주) (진공차단기, 계전기, 자동차단기)

계전기 및 각종 차단기 전문 생산업체인 동사는 중국 바이어들의 합작, 대리권 요청이 연이어졌음. 모 중국 바이어의 경우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을 방문하여 선도전기의 회사와 공장을 참관기로 약속하였으며, 대련 스위치공장의 북경 주재원은 대련 무역상담회사 공장 참관을

강력 요청하였음. 중국의 차단기 제조기술은 한국에 비해 손색은 없으나 원자재 품질과 설계 기술도 한국보다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바이어들은 판단하였음. 특히 진공차단기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이 대단하여 향후 동사의 관련 전시회 참가 등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시 시장 진출 가능성은 밝은 것으로 전망됨.

- 남성이업사 (다기능 만능 부스바 가공기)
다기능 만능 부스바 가공기 전문 생산업체인 동사는 중국 바이어들의 매우 높은 관심을 모았는데 모 중국업체의 경우 현장에서 계약을 요구하기도 하였음. 이에 한국업체는 중국업체로 하여금 우선 시장조사를 면밀히 진행후 물건을 주문토록 권유하였음. 동사는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중국업체들의 신용도, 자금결재 문제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일정기간 동안의 신뢰구축후 제품을 수출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였음. 그밖에도 동사 제품의 기능, 가격 등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대리권을 희망하는 중국업체와 합작 공장 설립의사를 피력하는 바이어도 있었음.

7. 종합의견

가. 중국 전력산업의 개혁 현황

- 중국의 전력산업 개혁은 그 강도에 있어서 IMF 체제하의 한국의 개혁에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회사의 구조조정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전력산업 개혁방향을 보면 우선 첫 단계로 발전소를 송배전회사와 분리하여

가격경쟁에 의해 전기를 판매토록 하고, 다음 단계는 배전 회사까지도 분리하여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임.

- 국가전력공사의 개혁과 발전의 성패는 중국 전력공업의 발전과 직접 관계될 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 산업경제 개혁 과정에서 “성공의 길을 모색하는 역할(役割)”을 띄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가전력공사는 세계 각국의 전력체제 개편 사례를 중국 실정에 반영하여 “전력산업의 4단계 개혁방안”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조치들을 추진 중에 있음.
- 제1단계 및 제2단계는 전력산업개혁의 초기단계로 중국전력산업의 정부기능과 기업기능간 분리를 통하여 국가전력공사 내부기구 조직개편, 발전소와 송전망의 분리, 농촌전력 관리체제 개혁등임.
- 제3단계(2001~2010)는 발전소와 송전망의 분리를 통하여 전국 송전망 연결, 발전시장 독립, 국가전력공사, 전력집단공사 및 성전력공사는 송전망 경영 위주로 함.
- 제4단계(2010 이후)는 발전·송전·배전 체제 분리를 통하여 전력시장 완전경쟁체제 진입이상과 같이, 중국의 전력산업도 세계의 전력산업 경쟁체제 흐름과 맞물려 구조조정의 단계에 있음.

나. 중전기 산업의 진출방향

- 중국의 중전기 수출시장 확보를 위하여는 기존 품목보다는 전력 전자가 응용된 신상품을 위주로 공략하고 현지 언론 및 광고 매개체를 통한 한국상품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현지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와 동종업체와의 무역상담회를 주선하여 우리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한·중국제 세미나 개최와 병행하여, 중전기 관련 각종 전시회(중국 전력공업부 주최 ELECTRO전)에 출품 또는 참관이 필요함.

- 중국 전력집단공사에 기자재납품과 현지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중국전력공업 기술분야 및 해외 구매담당 임직원을 초청하여 우리 업체의 기자재 생산과정, 성능시험과 품질검사과정 등을 직접 보여주어 우리나라 중전기제품의 우수성을 인식토록 함.
- 현재 중국은 WTO 미가입국으로 수출하는데 여러 가지 장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WTO 가입이 예정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현재는 중국에서는 중전기 제품의 수입시 완제품 위주보다는 합작투자나 기술투자를 통한 수입을 원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이 2000년에 WTO에 가입을 하여도 중국시장이 완전개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5년이후에나 수입장벽이 풀리게 되므로 중국에 진출하고자하는 중전기 업계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제품의 대중국 전력기자재 수출시장은 매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정부는 국산대체가 안되는 품목에 한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실수요자인 전력집단공사는 정부의 수입승인 후 전달받고 있어 매우 까다로운 구매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해외 유명 전력기자재 공장이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수출이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을 우리 중전기 업계에서는 세워야 한다고 생각됨.

고효율 절전 제품을 사용합시다.